

한중경제포럼

제19-06호 2019년 10월 18일

2019년 하반기 중국 거시경제 전망

2019년 제5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와 중국의 대응: 미·중 경제분쟁이 중국에게 주는 시사점
2. 일 시: 2019. 9. 23(월) 16:00~18:00
3. 발표자: 중국 국제경제교류중심 천원링(陈文玲) 총경제사

1. 미국의 변화: 미국은 경제 글로벌화의 최대 수혜자에서 방해자로 전환

□ 미국은 1920년대 황금시대에서 패권시대, 방해시대를 거쳐 미중 분쟁을 기점으로 쇠퇴시대에 접어들고 있음.

□ 황금시대

- 1920년대 미국은 전기를 발명하면서 10년 간 48%의 경제 성장률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함.
- 제조업이 전 세계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제2차, 제3차 기술혁명과 산업혁명의 핵심국가로 부상하였고 전 세계 50% 이상의 황금을 보유함.
- 당시 미국은 세계 1위 제조 강국으로, 이 시기는 글로벌 가치사슬산업사슬이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모든 제품이 미국에서 제조됨.
- 1920년대 이전, 제조 강국인 영국은 1차 기술혁명을 통해 핵심국가 지위를 확보하였고 특히 방직업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당시 전 세계에 53개의 식민지를 보유함(당시 프랑스도 전 세계에서 48개의 식민지를 보유).

□ 패권시대

- 이 시기 미국은 3개의 국제기구(IMF, WTO, 세계은행)를 주도적으로 설립하여 서방국가 중심의 국제 질서 및 규칙을 형성함.
- 1944년 브레튼 우즈체제(Bretton Woods System)가 도입된 이후 미 달러는 영국 파운드를 대체하여 전 세계 기축통화 역할을 하게 됨.
 - 브레튼 우즈체제를 통해 황금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통화가 미 달러와 연계되는 시스템이 형성되면서 미 달러는 전 세계의 금융 패권지위를 확보하게 됨.
 - 브레튼 우즈체제 확립 초기에 황금 1온스는 35달러에 불과했으나 현재 약 1,600달러로, 황금가치는 절상된 반면 미 달러 가치는 지속적으로 절하됨.
 - 미 달러는 미국의 세계 패권지위를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고, 이러한 패권지위는 2차 세계대전,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음.
 - 한편 유로화가 발행된 이후, 국제무역에서 100% 사용되던 미 달러의 비중은 40.4%로 감소하고 유로화의 비중은 35%로 확대됨. 그 외 일본 엔화와 영국 파운드가 각각 10%씩 차지, 2010년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 이후 위안화 비중은 2% 내외 차지
- 이후 미국은 '기술 강국'·'제조업 강국'·'군사 강국'으로 부상하여 글로벌 산업사슬가치사슬에서 최고의 지위를 확보하였고 특히 반도체 산업 분야의 경우 산업사슬의 상위 부분을 독점하고 있음.
 - 2017년 중국이 전 세계에서 수입한 반도체 규모는 2,600억 달러이며 그중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이 875억 달러를 기록
 - 2018년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3,130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미국의 對중국 수출규제로 인해 對미국 반도체 수입액은 감소한 반면 對한국 수입액이 증가
 - 중국기업인 화웨이(华为)가 원료소재제품을 구입하는 전 세계 기업(92개) 중 미국 기업이 32개를 차지
 - 화웨이는 현재 반도체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만약 미국의 수출규제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글로벌 산업사슬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미국으로부터 수입했을 가능성이 큼.
 - 미국은 군사강국으로 매년 군사지출 규모가 막대하며, 2019년 미국의 군사지출 예산은 7,160억 달러로 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 이는 전 세계 2~9위 국가의 군사예산 총합을 초과한 수준임.

□ 방해시대

- [탈퇴] 유네스코, 인권위원회, 파리협정, 이란 핵협정, 중거리 핵전력조약, 글로벌 이민협정,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 UPU, TPP 등
- [도발] 무역전쟁, 기술전쟁, 금융전쟁, 정권교체, 색깔 혁명, 군사 타격
- [금지] 무슬림 입국금지, 이민금지
- [국경장벽 건설] 관문 폐쇄, 국가 긴급상태, 군사비용
- [디커플링] 산업사슬 파괴, 냉전

□ 쇠퇴시대

- 미중 분쟁을 전환점으로 미국은 쇠퇴기에 진입
 -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미국의 GDP 성장률을 4%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집권 1년차에는 3% 미만, 2년 차에는 2.9%로 하락하였고, 2019년 1/4분기 3.1%에서 2/4분기 2.1%까지 하락하는 결과가 발생함.
 - 미국의 GDP 성장률 둔화는 미국 농산품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수입이 대폭 감소한 데에 영향을 받은 것임.
 - 미국의 對중국 수출규제로 인해 미국의 1,000여명 농장주가 도산하였고 자국 기업 역시 큰 손해를 보고 있음..
-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미국이 위협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임.
 - 화웨이는 미국의 수출규제로 인해 자체 개발한 '홍멍'(鸿蒙) OS와 칩을 사용할 계획이며 R&D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할 계획
- 탈달러화, 탈미국 국채화, 탈미국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추세
 - EU는 자체 국제 석유 결제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중국도 석유선물거래에서 위안화가 직접 황금과 연계되어 결제 가능함.
 - 현재 전 세계 30여개 국가가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22개 국가가 미국 국채를 매각하였고 특히 러시아 중앙은행의 경우 미국 국채를 거의 모두 매각함.
 - 세계 각국은 최근 몇 년간 황금보유량을 확대하고 있으며 2018년 전 세계 황금보유 증가량은 700여 톤으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중국의 황금보유량은 1,952톤으로 세계 5위 차지함. 세계 1위는 여전히 미국(8,113 톤)이며 그 외 러시아(2,200톤)와 독일도 중국보다 많은 황금을 보유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가가 아닌 비즈니스 맨 출신으로 자국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 하며, 신용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대국지위가 큰 위협을 받음.

□ 미국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 미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 핵전략 조약'에서 탈퇴함에 따라 무기에 대한 단속이 약화되면서 세계 평화의 불확실성이 증대됨.
- 현재 미국은 세계 각국과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불화를 야기하고 지역충돌전쟁을 일으켜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미국은 일방주의로 다자협력을 대체하고 국내법으로 국제 규칙을 대체하고 있음.
 - 따라서 미중 무역분쟁은 글로벌 산업사슬에 막대한 충격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상황에서 IMF의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7%에서 3.5%로, 3.5%에서 3.3%로, 3.3%에서 3.2%로 연속 4차례 하향 조정함.
 - WTO의 국제무역 증가율에 대한 예측치도 3.7%에서 2.6%로 하향 조정됨.

2. 중국의 변화: 중국의 '건국-부강-강국' 과정

□ 전 세계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국

- 2대 경제대국
 - 건국 이후 중국은 30년의 경제회복기와 40년의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규모 세계 2위로 부상(13조 6천만 달러)하였고 중국의 경제규모는 개혁개방 초기에는 미국 GDP의 5% 미만 수준이었으나 2018년의 66%까지 상승함.
- 최대 무역국
 - 현재 중국의 무역총액은 글로벌 무역총액의 12%(4조 6천억 달러)를 차지하며 향후 수출 뿐만 아니라 수입확대 정책을 통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제조업 생산액 1위 국가
 - 현재 중국의 제조업 생산액은 전 세계의 28.8% 차지하며, 중국은 전 세계의 제조대국으로 완벽한 산업사슬과 가치사슬을 보유함.
- 금융역량 제고
- 기술혁신 능력 대폭 향상
- 군사능력 강화
- 인프라 건설을 통한 장기적인 경제성장 가능성 확보
- 시장인적 자본·전략적 보너스 확보
 - 2019년 중국의 소비시장 규모는 40조 위안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임.
 - 소득 증가에 따라 13억 9천만 명 인구를 보유한 중국은 3억 2천만 명 인구의 미국에 비해 더 큰 시장 잠재력을 가짐.
 - 중국의 생산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2008년부터 방직, 의류, 신발, 가방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동남아, 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지역으로 이전되기 시작하였지만 완벽한 부대시설과 인적자본이 필요한 기업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해외투자가 감소되고 있는 현재 중국의 외자유치는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중국은 개방 확대 조치를 통해 외국기업을 위해 보다 더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 마련할 것임.

□ 미중 분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

- 중국은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미중 무역전쟁으로,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음.
- 만약 미중 무역전쟁이 발생한다면 중국은 결코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현재 미국이 중국에 대해 많은 규제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중국도 미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것임.
-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우승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음.
- 전 세계 각국은 힘을 모아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산업사슬 차단을 반대하는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1930년대처럼 경제 침체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3. 미중 경제분쟁이 중국에게 주는 시사점

□ 미국은 △ 객관적인 경제발전 규칙 △ 세계 발전의 시대적 흐름 △ 국제 거버넌스의 내재적 수요 △ 인류의 도덕과 의리 등을 위배하고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

- 객관적인 경제발전 규칙을 위배

- 2018년 미국의 무역적자(6,000억 달러) 중 對중국 무역적자 비중은 48%에 달함.
- 중국의 저렴하지만 우수한 품질의 제품은 미국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미국이 저렴한 비용으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뒷받침 해줌. 현재 미국의 對중국 추가 관세 부과에 따른 결과는 미국 소비자가 감당하고 있는 상황임.
- 미국의 對중국 추가 관세 부과를 통한 對중국 무역적자 감소는 그 효과가 미미하여, 2018년 미국의 對중국 무역적자는 12% 증가, 2019년 1~8월에 8% 증가함. 이는 미국의 중국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음을 의미함.

- 세계 발전의 시대적 흐름을 위배

- 미국의 국제무역에 대한 파괴행위가 없었더라면 국제무역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속도도 가속화될 것이고 각국의 경제현황도 좋은 양상을 보였을 것으로 예상됨.

- 국제 거버넌스의 내재적 수요를 위배

- 인류의 도덕과 의리를 위배

- 과거, 미국은 ‘글로벌화를 거부하는 것은 해가 뜨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해왔으나, 현재 미국의 정치계는 ‘글로벌화가 미국의 수천만 명 노동자에게 빈곤과 슬픔을 가져다주었고, 이로써 미국의 중산층이 사라졌다’는 관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미국주의가 글로벌리즘을 대체하여 미국의 신조가 될 것’이라고 발표
-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미국은 2018년 수입과 수출이 각각 31.5%, 11% 감소하는 등 총 78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관세율 인상 조정에 따른 결과는 전적으로 미국 소비자가 감당함(‘보호주의로 돌아가다’, 콜롬비아 Jerome A.Chazen 외 연구).

□ 한 국가의 집권자가 도덕, 신용, 이성을 잃고 자국의 이익과 규칙으로 다른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고 규칙을 위반한다면 해당 국가는 오만과 신용상실로 인해 시대의 버림과 처벌을 받게 될 것임.

- 2018년 8월, 토머스 프리드먼은 「미중관계의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 정의」에서 ‘현재 미중 양국은 전쟁 상태이며 이는 가장 오래된 초강대국과 새롭게 부상한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경제와 권력관계의 룰을 재정의하기 위해 발생된 것으로 단순한 무역분쟁이 아니다’라고 언급

- 중국이 확산할수록 미국은 초조하며, 중국이 침착할수록 미국은 피동적이고 중국이 개방할수록 미국은 고립될 것임.

□ 과거, 전 세계 경제발전 역사상 중대한 경제위기는 30%가 자연재해, 70%가 인재(人禍)로, 미국은 세계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킨 리스크의 근원이자 도화선

- 1930년 미국은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을 통해 2만 여개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 조정하고, 평균 관세율을 1929년의 40.1%에서 1932년의 59.1%로 인상한 바 있음.

- 이후 다른 국가의 보복 조치로 미국의 수출 총액은 52억 달러에서 16.5억 달러로 급감하고 국제 무역총액은 36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로 감소함.

- 나아가 글로벌 경제둔화로 인해 독일에서는 히틀러의 나치 통제가 시작되었고 일본에서는 대외 확장적인 군국주의가 촉발되었음. 그 후 미국은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을 통해 자유무역을 추진함.
- 현재 미국은 국내법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저미국 수출국가에 대한 무역규제를 실시하고 타국의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사람에 의한 새로운 재난의 형태로 볼 수 있음.

□ 미중관계는 협력만이 정답이며, 양국관계가 화목해야 세계가 번창하고, 양국이 싸우면 세계가 혼란스러워지며, 양국관계가 깨지면 세계경제가 쇠퇴할 것임.

- 지난 100여 년간 무려 48차례의 경제위기(GDP 성장률 -3% 이하)가 발생함.
 - 1921년 독일에서 발생한 '초 인플레이션'과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은 모두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침.
 - 유일하게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로 인한 국제경제 위기만이 중국의 역할로 재난 수준은 모면함.
- 미중 간 경제교류는 과거에 비해 훨씬 긴밀해짐.
 - 미중은 서로 최대 무역대상국으로 2017년과 2018년 미중 무역 규모는 각각 5,800억 달러와 6,335억 달러를 기록, 양자 간 투자액은 누적 2,400억 달러를 상회함.
- 미중 양국의 GDP는 전 세계의 40% 차지함.
 - 제조업 생산액, 무역, 인구는 각각 전 세계의 40%, 25%, 25%를 차지하며, 미중 통화의 SDR 바스켓 비중은 52% 기록

□ 향후 미중 무역전쟁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이며, 무역충돌은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 점차 분야가 확대되어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제조업] 미국의 301조 보고서, 중국제조 2025 전면 억제, 제조업의 중국 이전 규제, 미국의 각종 수단을 통한 제조업 진흥
- [첨단기술] 미국의 중흥통신(中兴通讯), 화웨이(华为), 진화(晋华)에 대한 규제
- [금융] 중국 금융이 개방되면서 미 달러 패권, 미국 국채, 미국이 통화정책 등에 따른 리스크 확대

□ 미중 간 무역협상

- 3월 28~29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은 중국을 방문, 베이징에서 제8차 미중 경제무역 협상을 진행
- 4월 초 리우허(刘鹤) 부총리가 미국을 방문하고, 워싱턴에서 제9차 미중 경제무역 협상을 진행
- 미중 양국 정상은 상호간 추가 부과한 관세를 모두 취소하고, 모든 메커니즘을 양방향공정·평등의 전제하에서 추진할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
- 주의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미국 측은 미중 협상이 타결되고 중국 측이 협의사항을 이행할 때까지 중국에 대한 추가 부과 관세율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임.

질의응답(Q&A):

Q 1. 미국과의 경쟁에 있어 중국은 미국과의 싸움을 원하지 않지만, 만약 싸우게 된다면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셨는데 현재 미국이 군사, 기술, 통화 등 분야에서 패권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어떻게 미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내부적인 역량은 무엇인가? 만약 경쟁에서 이기게 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는가?

A 1. 중국이 미국과 경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원인은 현재 중국이 미국에 비해 군사, 기술, 통화 등 분야에서 낙후되었기 때문임. 하지만 미중 양국이 싸우게 된다면 중국이 이길 것이라 확신하는 원인은 우선 역사의 긴 주기에서 볼 때 중국은 상승단계에 있지만 미국은 하향단계에 있기 때문임. 중국이 패권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시기는 개인적으로 2050년 내외로 생각함. 그 외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는 원인은 △ 중국은 국제 규칙과 질서를 수호하는 정의로운 국가로서 미국에 비해 세계 다른 국가의 신뢰를 더 쉽게 받을 수 있고 △ 중국은 세계 최대 시장을 확보한 국가로 2019년 소비규모는 40조 위안이 예상되며 향후 매년 9% 내외의 증가율을 유지할 전망, 또한 중산층 인구 4억 명으로 미국의 전체 인구 수(3억 2천만 명)를 초과하여 향후 중국의 시장은 세계 각국 투자자와 기업을 위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됨, △ 2008년 국제금융위기 발생 이후 전 세계 GDP 성장에 대한 중국의 기여도는 30% 내외를 유지하고 2018년에도 30%에 달하였으나 2018년 미국의 기여도는 15.3%에 불과함, △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를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최대 3% 내외로 2035년이 되면 중국의 경제 규모는 미국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제조업의 글로벌화 등 경제 글로벌화에 따라 산업사슬에 있는 기업은 국가, 재산권 등과 상관없이 서로 간의 상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음, △ 중국은 전 세계 120여개 국가의 최대 무역상대국이고 70여개 국가의 제2위 무역상대국으로 많은 국가와 밀접한 경제무역 관계를 맺었으며, 전 세계 많은 국가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중국의 혁신 역량(700여개의 국가실험실과 풍부한 인적자원)도 빠르게 강화됨, △ 타국에 대한 미중 양국의 입장차이(예를 들어 중국은 국가 간 평화를 원하지만 미국은 국가/지역 간 갈등을 원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신용 등에 따른 미 달러, 기술 등의 패권지위도 영향을 받게 됨) 등 여러 요인을 포함함.

Q 2. 미중 무역분쟁에 있어서 미국은 중국의 강제적인 기술이전, 정부의 산업보조금 등 불공정한 제도에 대해 줄곧 주장해왔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미국 측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에 타결될 번 하다가 결렬되었는데 뭐가 문제였는가? 중국은 미국 측이 주장하는 불공정한 제도가 없다는 주장인가 아니면 불공정 제도가 있긴 하지만 보장을 하지 못한다는 입장인가? 또한 미국이 산업사슬을 파괴함에 따라 화웨이가 안드로이드를 대체할 OS를 개발하였는데 만약 글로벌 산업사슬이 미국에 의해 파괴된다면 중국은 독자적인 산업사슬을 구축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응방안이 있는가?

A 2. 중국은 40여년의 지적권 보호 조치를 통해 현재 세계지식재산권기구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조치와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인증을 받음. 현재 중국은 지적권 보호와 관련하여 3개 법원, 16개 법정, 200여개 보호센터를 구축해 법적 보호 시스템이 잘 마련돼 있으며, 지적권 관련 문제는 법적 수단과 행정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강제적 기술이전과 관련해서 기업은 법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음. 미국이 301조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 미국에게 보고서 작성근거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했으나 당시 미국 측은 미국기업이 직접 반영한 것은 아니고 들

은 소문을 근거로 했다고 밝힘. 또한 미중 협상과정에서 중국 측은 미국 측에게 실제 사례를 여러 차례 물었으나 미국 측은 한건도 밝힌 것이 없음. 주미국 중국대사도 미국의 많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미국 측에게 기술의 강제이전과 관련해서 실제 사례가 있으면 중국 측에 알려주길 바라고 이에 대해 개선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으나 역시 미국 측으로부터 확인을 받지 못함. 중국은 새로이 수정한 '외국인 기업법'에서 기술의 강제적인 이전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함. 즉 미국은 중국에게 명확한 사례를 밝히지 않았으나 중국은 이미 이와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산업보조금과 관련해서 중국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함. 즉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등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부조달 등 방식으로 바뀌어야 함.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중국 국내에서도 국유기업 보조금 개혁 등 많은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미국이나 유럽의 건의사항은 중국 국내의 개혁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음. 또한 미국도 전 세계에서 농업보조금을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음. 미국의 산업보조금은 정부조달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중국도 정부조달 등 새로운 형식을 취할 수 있음. 미국이 제기한 요구조건이 중국의 개혁방향과 국제 규칙에 부합된다면 중국은 타결할 수 있음.

글로벌 산업사슬은 파괴되기 어렵다고 생각함. 미국이 산업사슬을 파괴할 경우 미국기업도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될 것임. 개인적으로 산업사슬의 재구축보다는 산업형태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봄. 산업이전은 시장의 추진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며 산업은 혁신, 시장, 서비스 등 산업사슬이 완벽한 곳으로 집중될 것임. 그 어떤 누군가에 의해 산업사슬이 재구축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 산업사슬에 포함된 기업 간 상호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산업사슬을 통해 수요-공급간 균형이 이루어짐. 따라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산업사슬은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함.